

자동차 100만대 ‘감감 무소식’... 남해안철도 고속화 3% ‘짚뚱’

朴대통령 광주·전남지역 대선공약 예산 살펴보니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넘어섰는데 대선 당시 광주와 전남지역민에게 약속했던 대선 공약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공약사업에는 짚뚱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나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룰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0'에 가깝다.

19일부터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과 관련한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된다.

◇민주·인권·평화도시 제자리 걸음 =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은 모두 7개로, 세부사업은 14개다.

이 가운데 광주가 그동안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박 대통령의 최대 공약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국비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676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만, 아직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함께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주목된다.

광주를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진척이 없다. 박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5·18 아카이브센터 건립사업만이 올해 5월 개관에 마무리됐다.

반면 서울과 마산, 광주에 건립하기로 합의된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사업의 경우 단 한 차례도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서울에만 짓는 방안을 추진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총 사업비 1314억원을 투입해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사업도 박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법무부와 부지 무상양여 협의만이 진행중인 사업 진척이 없다.

양동시장 일대 광주전 복원 및 현대화사업과 용봉천 등 지천 복개구간 생태하천

민주·인권도시 조성 ‘제자리’

전남 11개 사업 반영율 6%

복원사업은 단 한번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 사업 또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아시아문화수도 육성 사업도 ‘짚뚱’ 예산 지원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558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2억원만이 반영됐다.

국책사업인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광주~순천·2조304억원)은 광주시가 단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전남 공약사업 3년간 예산 반영 5.84% =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에 약속한 공약은 모두 7개로, 세부사업은 11개다. 이 가운데 1조3083억원짜리인 남해안철도고속화사업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과 2014년 각각 2억원, 2015년 152억원이 배정됐으며,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30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250억원만 반영됐다.

4년간 전체 사업비 가운데 3.1%만 국비 지원을 받은 셈이다. 사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남~경남 간 한려대교는 3년간 아무런 지원이 없었으며,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5040억원짜리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처지다.

2조4731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순정~목포, 77.6km) 건설사업은 올해 6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을 뿐이다.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20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110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1조7990억원, 69.55km)에는 모두 1조7990억원이 들지만 2014년 82억원, 올해 100억원이 지원됐으며, 내년도 예산도 전남도가 요청한 2000억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49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602억원)에는 올해 가까스로 25억원이 반영됐지만,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도 지원 국비 2500억원에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사업(350억원)은 4년 연속 정부예산 반영 ‘제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효율적 사후활용(580억원), 순천만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70억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3036억원, 10.8km)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지원 공약은 3년간 모두 합쳐 324억원이 지원됐을 뿐이다. /최권일기자 cki@yonhnews.com /윤현석기자chadol@



朴대통령 귀국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3박6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표류중인 박근혜 대통령 광주·전남 공약사업

공약	세부사업	총사업비	2014년까지 투입비	2015년 반영액	2016년 정부 예산안 반영액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조성사업		8,347	0	0	0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300	0	0	0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1,314	0	0	0
광주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 추진	광주천(양동복개공사) 생태하천복원사업	3,490	0	0	0
◆전남					
전남~경남 간 한려대교 건설		5,040	10	0	0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602	0	25	0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350	0	0	0
우주항공기 체험 관광명소 구축	국가 비행종합 성능시험장 구축	535	2	140	0
	과학로켓 센터 구축	240	0	10	0

새정치 “교과서 국정화 예산 한푼도 안된다”

국회 ‘예산전쟁’ 관전 포인트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올해 정치권의 ‘예산 전쟁’은 내년 4월 20대 총선이 겹치면서 어느 해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교과서 국정화 예산 충돌 = 내년도 예산안 중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명목으로 책정된 58억원여원을 비롯해 새로운

누리 예산 부담 놓고 대치

특수활동비 삭감 공방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도입에는 총 10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푼도 안 된다”며 전액 삭감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도 국정화 예산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 쓰지 않고 남겨둔 ‘자연예산’까지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정부 여당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예비비를 끌어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야당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교육부의 관련 예산 등 다른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 보겠다”고 말해 교육부의 사업 전반으로 전선이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 대치 = 정부여당은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과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면서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다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 삭감 공방 = 올해 기준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때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야당에서는 ‘눈돈 돈’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적 정치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사정기관의 예산인 만큼 비공개 예산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초·중·고에 ‘누리예산 정부 편성’ 현수막

교육감협의회 공식 안전 대책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내걸릴지 주목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변인들이 모여 회의 끝에 현수막 게시를 교육감협의회 공식 안전으로 올리고 협의회에서 의결하면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변인들이 지난 16일 서울교육청에 모여 회의를 열고 현수막을 전국의 학교에 내거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변인 회의는 지난 5일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의 후속 조치다.

전국 교육청 대변인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공동 홍보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유·초·중·고교 전체 학교에 누리과정 예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방안도 모색됐다.

대변인들은 이같은 내용을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안전 대책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안전을 논의해 현수막 게시를 결정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228-1199

하나허니문 인기 상품

개주열 [세미팩] [직항이동] 프라하 6일/7일

총상품가 1,94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EUR12~,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일/월요일

특 전 : 인천 → 프라하 직항 이동
프라하 스냅 촬영 포함/일일 데이투어 포함
공항 미팅, 샌딩 서비스 포함

하나허니문 추천 상품

클래식 [스타가이드] 파리(1일관광)/이태리(더몰+피렌체) 8일

총상품가 2,618,7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10월 ~ 12월 매주 일요일

특 전 : 파리-로마 항공 이동
유럽 아울렛 더몰+피렌체 가이드 관광
몽파르나스 타워 56층 코스 요리, 마장콜레(해물 특식)with 와인

하나허니문 인기 상품

개주열 [프리텔] 이태리(로마/피렌체/베니스) 8일

총상품가 2,144,6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토/일요일

특 전 : 예식 후 당일 출발 가능
로마 → 피렌체 → 베네치아 초고속 열차티켓 포함
시내 중심의 존드급 호텔 숙박

하나허니문 추천 상품

클래식 [반얀트리] 세이셸 6일/7일

총상품가 3,453,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없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토/일/월요일

특 전 : 오션뷰풀빌라 4박 숙박 / 공항 → 리조트 간 미팅,샌딩 서비스
샴페인 1병, 디럭스 과일 바구니, 로맨틱 빌라 셋업, 기념 선물 제공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유료, 관광진흥기금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착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현지에서 제공되는 음식, 음료 및 숙박이외에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에 따라 자유로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항: 시정에서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정사: 동북연호 제2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준/ 호실 2급호실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역 2) 여행 지역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